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배포일시	2017. 1. 17. (화)	담당부서	동북아통상과
담당과장	조수정 과장(044-203-5690)	담 당 자	윤선민 사무관(044-203-5695)

중국 통상현안, "따질 것은 따지되, 합리적으로 대처키로"

- 제4차 한중 통상점검 T/F 개최, 업계와 지속 소통키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**1.17(화) 16:00, 우태희 2차관 주재**로 **제4차 한중 통상점검 테스크포스(T/F)**를 개최하여 대중(對中) **통상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**했다.

* 한중 통상점검 T/F는 수입규제, 비관세 장벽 등 대중(對中) **통상현안 및 현지 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을 점검**하기 위해 설치한 **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**
* 관계부처 한중 통상점검회의: 1차('16.12.2), 2차('16.12.15), 3차('17.1.4)

○ 특히 이번 회의는 **참석 범위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**해 **산업,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우리 기업의 현장 애로 사항에 대해 협의**하고,

○ 최근 북경에서 개최된 **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(FTA) 공동위원회 결과**를 공유하며 **중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** 등도 폭넓게 논의했다.

< 제4차 한중 통상점검 T/F 개요 >

- **일시·장소** : '17. 1. 17. (화), 16:00~17:00, 서울
- **참석부처** : 산업통상자원부, 외교부, 문화체육관광부, 식약처 등
- **참석기업 :** 전기전자, 철강, 자동차, 관광, 화장품 업계 등
- **주요내용** : 한중 자유무역협정(FTA) 공동위원회 결과 공유, 우리 진출기업 애로사항 논의 등

□ **참석 기업은** 최근 일련의 **통상·투자 분야 애로사항** 등을 참석한 **관계부처와 공유**하면서, **기업 애로해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**했다.

○ 일부 참석기업은 업계 차원에서 대응은 하고 있으나, 중국정부와 직접적인 교섭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, **정부 차원에서 제기를 해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, 앞으로도 정부 차원에서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지속 협의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**했다.

□ 정부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중국의 **수입규제, 비관세장벽,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** 등에 대한 관련 현황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.

○ **수입규제 조치**와 관련, 최근 중국 상무부의 **반덤핑 신규조사 개시**와 **과도한 반덤핑 부과** 등에 대해 우리 업계 피해 가능성

○ **비관세 조치**와 관련, **화장품, 농식품** 등 문제와 **관광·항공, 문화·콘텐츠** 분야 현안과

○ **현지진출 기업 애로사항** 관련, 최근 일련의 **기업 조사** 및 **차별적 조치**에 대해 관련 동향을 점검했다.

□ **우태희 차관**은 "한중 관계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**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(FTA) 공동위원회를 개최**하여 양국 간 **통상현안 해결**을 위해 중국과 **협의**하고 **소통을 계속하고 있다.**"라고 말하고,

○ "중측에 **이의**를 **제기할 부분은 의연하게 지속적으로 제기**할 것이나, **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**이다." 라고 강조했다.

□ 정부는 앞으로도 **중국의 통상정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**하면서, **「한중 통상점검 테스크포스(T/F)」** 등을 통해 업계와 **지속 소통**하고, **민관 공동으로 중국 통상현안에 대응**해 나갈 예정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윤선민 사무관(☎044-203-569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